

무재해 운동 활성화바람 분다



▲ 무재해 달성탑(5배수~9배수 달성 시 수여)



▲ 무재해 달성탑(10배수부터 매 5배수 달성시마다 수여)

안전협회는 시들해 지고 있는 무재해 운동 활성화를 위해 「무재해 목표 달성탑 및 달성기」 수여사업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당초 공단 규정에 근거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무재해 탑은 수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재해 목표 5배수 달성 이후 10배수까지는 기간이 길어 무재해 추진운동이 시들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안전협회에서는 무재해 목표를 매 1배수 추가 달성시마다 무재해 달성기를 수여하고, 5배수부터 10배수까지 매 1배수마다 달성탑을 수여하며, 10배수부터는 매 5배수마다 크리스탈의 달성탑을 수여한다.

무재해 달성기 형상은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색상은 모든 색상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보라색으로 “최고의 사업장”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매 1배수마다 달성기의 문구를 달리 함으로써 달성기가 게양된 사업장은 멀리서도 형상만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눈에 잘 띄게 제작되었다.

무재해 달성 매 배수 마다 달성기 또는 달성탑을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에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시들해지고 있는 무재해 추진운동에 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안전협회 회원홍보부 (02)860-7025~8>



▲ 무재해 달성기(매 배수마다 수여)

「안전협회·대덕대학」 산업협력체제 구축



지난 8월 22일 대덕대학 정곡관에서는 산업보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갖었다.

안전협회와 대덕대학이 체결한 이날 협약서에 의하면 연구시설 및 실습시설 활용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주문식 맞춤 교육, 새로운 교수 기법 및 교재 등의 공동 개발 및 협력 체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봉 학장을 비롯한 대덕대학 관계자와 이홍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나가 된 구미지회 회원



구미지회에서는 회원사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금호대 실내 체육관에서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분과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주) 이우형 대리 등 27명의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이홍지 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구미 시장, 서창국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에는 오리온전기(주) 김시은 대리가 대표로 제창하

였고, 2부 행사로 진행된 분과별 체육대회에서는 구미 산업분과가 족구에서, 섬유 산업분과가 배구, 김천·영주·안동 분과가 농구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안전컨텐츠 개발 능력 향상 교육 실시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안전협회는 대덕대학에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 컨텐츠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7월 8일에 1차 교육을 시작으로 8월 22일 4차 교육까지 총 78명이 참가하여 2박3일 동안 안전·재해 컨텐츠 기획 및 구성, 디지털 비선형 편집 System 등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수 기법 및 교재 개발 기법 위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협회는 산업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지역 재해 감소에

김천 대흥기업 무재해목표 5배달성



성한 이도수 대표에게 협회장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대흥기업 임직원들은 무재해 10배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안전활동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8월 1일 김천시에 소재한 대흥기업에서는 (주)코오롱 김천공장 김원상 공장장 등 내외귀빈 과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하여 무재해 목표 5배달 성 기념식을 가졌다. 대흥기업은 (주)코오롱의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는 협력 업체로써, 안전협회 구미지회로부터 1996년 5월 이후 안전점검·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업무를 지원받아 1997. 1. 22~2002. 6. 19까지 1,975일간의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하였다.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오늘과 같은 무재해 목표달

올 상반기 재해율 전년도 보다 0.01% 낮아

금년 6월말까지 재해율은 0.37%로 전년동기 대비 0.01%p(2.63%)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재해자수는 3,83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6명(3.42%)이 증가하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수는 1,24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9명(4.11%)이 증가한 반면 사망인율은 1.18로 0.04%p(3.18%)가 감소하였다. 이 중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와 사망율이 전년동기 대비 8.20%, 1.72%로 증가하였다.

난청, 중금속 중독 등의 작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66명(29.2%) 증가와 작업관련성 질병자 중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자의 44%, 요통질환자 2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광업 등에서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등에서 감소했다.

안전경영대상 시상 올해로 10회 맞아

노동부는 제10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에는 중공업, 제조업 분야, 화학공업 제조분야, 경공업 제조분야, 종합건설업 분야, 전문건설업 분야, 에너지사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8개 부문의 기업대상과 기술상, 저술상, 공로상 3개 부문의 특별상 등 11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11월 중순에 시상식을 갖을 예정인 제10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은 먼저 9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최종수상자를 선정한다. 

